

2022 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2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을 통과함

성경: 엡 4:20-24, 요 7:37-39, 빌 4:11-13, 막 6:45-51, 단 4:25-26, 7:25

- I.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의 실지 상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 실재”(엡 4:21)가 실재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엡 4:20-24).
 - A.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삶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의 틀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 롬 8:28-29, 엡 4:20-21.
 - B. 우리가 연합된 영(신성한 영께서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된 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요 16:13, 롬 8:16, 고전 6:17, 빌 3:3).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전기가 우리의 역사가 된다(갈 6:17-18, 엡 4:20-24, 빌 1:8, 2:5, 13).
- II.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인성이 있다. 한 몸을 위해 한 영을 마시고 흐르게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하고 부요하게 된 인간 미덕들, 곧 겸허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짐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인성의 영을 마시고 흐르게 하는 것이다 — 요 7:37-39, 고전 12:13, 행 16:7, 엡 4:2-3, 살전 1:5.
 - A.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겸허와 온유함이신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겸허한 것은 낮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이다 — 엡 4:2, 빌 2:5-8, 마 11:29, 5:40, 막 10:45, 요 13:12-17.
 - B.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기뻐하며 오래참음이신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오래참는 것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몸을 위해 견디는 것이다 — 골 1:11, 24.
 - C.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기 위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큰 어려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짊어지신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버리지 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의 표현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짊어져야 한다 — 엡 4:2, 31-32, 롬 2:3-4, 살전 5:12-18, 비교 시 73:21-26.
 - D.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먹는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신 실재의 영 안에서 회복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하여 그분의 높여진 인성의 모든 미덕들이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 고전 1:2, 10:3-4, 17, 12:3 하, 13, 요 16:13, 엡 4:3-4 상.
 - E.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기 위해 그분과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채워져,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목양하시고 다른 이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 — 요 4:24, 눅 15:20, 마 5:15-16.

I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족의 비결로 취하고 우리의 생활로 취하며 내주하시는 본으로 취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실재의 영이신 그분을 누려야 한다 — 빌 4:11-13, 1:19.

- A. 주 예수님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섬기셨고, 현재에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 장래에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 — 막 10:45, 눅 22:26-27, 막 6:45-51, 요 10:10, 6:48, 8:12, 13:4-8, 18:7-9, 눅 12:37.
- B.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반복인 삶을 현재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 요 1:4, 14:6 상, 10:10, 고전 15:45 하, 마 11:29 상, 17:5 하, 벰전 2:21.
- C.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내일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롬 8:6).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는 ...이다”,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이시다(히 3:7, 13, 15, 요 8:58, 줄 33:11, 14).
- D.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그분을 앙망하여,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몸의 공급에 의해,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주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된, 부활을 누리는 나사로처럼 되어야 한다 — 창 2:22, 롬 9:16, 요 12:1-3, 9-11, 비교 전 9:4.
 - 1. 우리는 죽고 냄새나고 냉담하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 요 11:38-45, 12:9-11.
 - 2.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를 의미한다 — 눅 18:27, 민 16:3, 7-11, 36-38, 17:1-8, 롬 12:4.

IV.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배우는 과정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주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정하신 여정과 과정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여정을 마치기를 추구해야 한다 — 막 6:45-51, 행 13:25, 36, 20:24, 딤후 4:7-8, 행 26:16.

- A.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세상은 긴 밤 속에 있다. “밤이 깊었고”(롬 13:12), 우리의 배는 “바다 한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막 6:45-48, 요 6:21, 비교 살후 2:2, 딤후 3:1-13).
- B. 우리는 신실한 믿는 이들의 여정은 바람이 ‘거슬러’ 불고, ‘노 젓느라고 괴로워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배’(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사업 등등) 안으로 모셔들여 인생의 여정에서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려야 한다 — 막 6:47-51, 요 6:21.
- C.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변질(살후 2:3)과 위협한 때와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딤후 3:1-13)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신다(살후 2:11-12, 사 5:20).

V. 주님의 오시는 날이 밝기(벰후 2:19) 바로 전인 이 시기에 우리는 사탄의 지치게 하는 계략(단 7:25)에 맞서야 하며,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며 그분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마 16:18, 창 2:22, 계 19:7) 우리에게 정해주신 여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딤후 2:1) 한다.

- A.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 일한다. 사탄의 공격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사탄의 공격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한다(마 24:12). 사탄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치게 한다(엡 6:13).

1.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체를 지치게 한다. 사탄은 오늘은 음식을 조금 줄이고 내일은 잠을 조금 줄여서 사람들을 소진(消盡)시킨다. 사탄은 사람들을 오늘 조금 피곤하게 하고 내일 조금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피곤함이 쌓인 결과 결국 그들의 건강은 완전히 망쳐진다.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인 유용성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는 철십 세부터 팔십 세 사이가 될 것이고 심지어 구십 세까지도 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건강이 우선이고 일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 비교 신 34:7.
 2.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사탄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날 갑자기 불안하게 되고 다음 날은 행복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우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 결국에는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쁨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잠 4:18-23, 롬 14:17, 렘 15:16.
 3. 사탄은 우리의 영을 지치게 한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조금씩 빼앗아 간다.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연인이 되기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타고난 역량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 아 8:5 상, 고후 1:8-9.
 4.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소모시킨다.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엡 5:15-16), 매일이 우리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빼앗아가는 해로운 것들로 가득한 악한 날이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시 90:12) 메뚜기가 먹어 버린 해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욥 2:25).
 5. 사탄은 우리의 헌신을 마멸시킨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긴 머리털로 상징된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다. 사탄은 날마다 말로 삼손을 조른 들릴라를 사용했다. 결국 삼손의 혼은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밝혔다. 그렇게 하여 삼손은 자신의 헌신, 자신의 힘, 자신의 거룩함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 민 6:2, 5, 사 16:6-21, 비교, 레 6:12-13, 8:22.
- B.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부패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둠이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한 이사야처럼 매우 낙심하게 될 수 있다 — 사 5:20, 6:1-8.
1.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주님과 왕과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였다(사 5:5, 요 12:41 및 각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요동하지만 주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상황을 내려다보지 말고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히 12:2, 골 3:1-2).
 2.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그분의 목적(골 1:18)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계 19:16)을 포함하여 우주(단 4:25-26)를 통치하신다.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선민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한다(롬 8:28-29).